당신의 스펙을 올리는 스마트한 선택!
서울지역 2·3년제 대학교가 정답입니다
교육의 중심, 서울지역 2·3년제 대학교! 당신의 가능성을 찾아 스마트한 인재로 키워드립니다
세상에 한 명뿐인 스페셜리스트,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 서울지역 2·3년제 대학교에서 나옵니다

소녀시대 나오자마자 '흠'

메트로 2013년 1월 3일 목요일 제2641호 www.metroseoul.co.kr



기성용 종료직전 동점골AS

새해 개장 첫날 코스피 단숨에 2030 돌파… 환율은 1년여 만에 1060원대로 급락 2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환율과 코스피를 모니터링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10원 내린 1063.5원에 장을 마쳤으며 코스피는 지난해 종가보다 34.05포인트(1.71%) 상승한 2031.10으로 장을 마감했다. <관련기사 8·12면> /연합뉴스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

# 영하 16도! 거리는 온통 꽁꽁패션

**패딩·귀마개·마스크 몸 싸매고 눈만 빼꼼 출근**
**멋 포기못한 여성들은 '에스키모 모자'로 액센트**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으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2일 아침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 거리는 '시베리아 패션'이 한창이었다.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두툼한 패딩 코트에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을 고무 부츠,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이나 쓸 법한 털모자로 중무장한 직장인들이 종종걸음을 치고 있었다.

계사년 새해 첫날부터 몰아닥친 북극 한파가 직장인들의 출근 패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올 겨울 키워드는 멋보다 따뜻함이다. 오피스룩을 대표하는 단정한 모직 코트는 벗어던진 지 오래다. 둔해 보이더라도 북극곰 같은 펑퍼짐한 패딩에 귀마개·마스크로 꽁꽁 싸매 눈만 빼꼼히 내민 차림새가 오피스가에 유행처럼 번지는 중이다.

짧고 경쾌한 패딩은 찾아볼 수 없다. 뚱뚱해 보인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허벅다운'은 이번 시즌 '완판' 아이템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영등포에서 광화문까지 출근하는 강진주(27·여)씨는 "지하철역에서 사무실까지 10분 가까이 걸어야 해서 등산할 때 입던 방풍 점퍼와 내복 등 최대한 이런 걸 껴쳐 입고 나왔다"며 "눈 때문에 이룹 장화에 털을 달아 신고 대신 굽 높은 구두는 가방 속에 넣어 왔다"고 말했다.

**◆일체형 방한 액세서리 인기**

한낮에도 칼바람이 부는 탓에 점심시간 식사를 하러 사무실을 나설 때도 '완전무장'을 한 직장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번 겨울엔 모자와 귀마개, 목도리가 모두 붙어있는 일체형 방한 액세서리가 잇 아이템으로 퍼올랐다. 추위에 강한 등산용품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긴 헬멧형 레저 모자 '발라클라바'. 머리부터 어깨까지 이어져 있는 스타일로 목도리가 따로 필요 없어 간편하기까지 하다. 머리숱이 없어 추위를 더 많이 탄다는 직장인 정석원(43·남)씨는 "얼굴을 완전히 덮어 열을 잘 빼앗기는 머리와 귀를 동시에 보호해 엄청 따뜻하다"며 "한번 쓰고 나니 중독처럼 벗을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추위관(?) 스타일에 민감한 오피스 우먼들은 투박한 귀달이 모자 대신 일명 '떡텁 모자'라고 불리는 '샤프카(에스키모 모자)'로 멋과 추위를 동시에 잡고 있다. 복슬복슬한 퍼 소재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 정장을 즐겨 입는 직장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

시린 손끝을 감싸는 장갑은 확대한 길어졌다. 팔목을 넘어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암 워머(arm warmer)'가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손가락 끝을 잘라낸 스타일도 나왔다.

스타일리스트 김세화씨는 "최근 기록적인 한파 속에 부츠 안에 도톰한 수면양말이나 등산양말을 신고 손으로 드는 토트백 대신 백팩을 메는 등 스타일을 망가뜨리지 않는 방한 차림이 다채롭게 등장해 패션업계 또한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3일) 출퇴근길은 더 혹독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 무서운 서울 전셋값

**그 돈 빼면 전남 아파트 3채 구입 가능**

전셋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서울의 30평 아파트 전세를 마련하려면 약 9년여 걸리고, 강남의 경우에는 1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의 전셋값으로 전국에서 가장 싸다는 전남지역의 아파트를 3채 정도 살 수 있었다.

2일 국민은행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2012년 12월) 전남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가 11.5% 올랐지만 같은 기간 서울 전세가는 약 31% 올랐다.

국민은행 발표를 보면 서울 소재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82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84㎡(30평)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 시세는 2억6913만원이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중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 42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도 서울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금을 구하는 데 4.9년이 걸린다.

이는 또 전국 주요 시·도 광역시 중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싼 전남에서 같은 크기의 아파트 3채 정도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58만원이다. 산술적으로 3.3㎡당 서울 전셋값 829만원과 비교하면 전남에서는 아파트 2.8채를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울은 물론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더 떨어지는 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전셋값은 오를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시장 회복 기대는 어려운 만큼 전세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

# "고맙다! 싸이야" 양현석 880억 늘어 연예인 주식부자 1위 등극

연예인 주식부자 순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2,195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2,001
배용준 키이스트 대주주 237
양수경 예당컴퍼니 대주주 82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주주 73

지난해 세계적인 붐풍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 효과에 국내 연예인 주식 부자 순위가 바뀌었다.

재벌닷컴이 2일 발표한 국내 주식 부자 순위에 따르면 싸이가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사진) 대표이사는 국내 서열 49위로 64위의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을 제치고 연예인 주식부자 1위에 올랐다.

양 대표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2011년 말 1314억원이었으나, 싸이의 활약 후 지난해 말 2195억원으로 67%(881억원) 증가했다. 이 회장은 2011년 말 1847억원으로 연예인 주식 부자 1위였지만 올해는 8.3%(154억원) 늘어난 2001억원에 그쳐 2위로 내려갔다.

이어 배용준 키이스트 대주주(237억원), 양수경 예당컴퍼니 대주주(82억원),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주주(73억원)가 연예인 주식 부자 3~5위를 차지했다.

한편 국내 전체 주식 부자 1위는 10조8558억원을 보유한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사상 최초로 10조원대를 돌파했다. 7조3497억원을 가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위를 기록했고 3~5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정몽준 의원 순이었다.

/박진형기자 sds1427@

# 참을수 없는 아동음란물

## 아동 성범죄자 16% 범행 직전 '로리타' 시청

아동 성범죄자 중 16%가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아동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성범죄자(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법무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아동 음란물과 아동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결과, 아동 음란물을 접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 성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288명(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전과 및 성범죄 발생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또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2회 이상 시청한 비율은 아동 성범죄자 13.7%, 일반 성범죄자 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아동·폭력 음란물에 대해 성적 충동을 느낀다는 응답은 일반인은 각각 5.9%, 11.8%만 반응을 보인 반면 성범죄자들은 각각 10.2%, 17.1%로 2배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아동 음란물 시청이 폭력 가학적인 다른 유형의 불법 음란물과 결합하면 성범죄 행위의 전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사랑 나누는 시무식 2일 서울 서초구청 강당에서 열린 이웃사랑 나눔 시무식에서 서초구청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물품을 기부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쌀과 라면 내의, 옷, 학용품, 생필품 등은 사회시설 등에도 전달한다. /뉴시스

이에 썰매장 만든 아파트 올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충북 충주시 목행동의 한 아파트는 아예 단지 내 눈이 쌓인 경사진 도로의 통행을 막고 썰매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박진희씨 제공

# 비싼 참고서값 알고보니 출판사 담합

참고서를 만드는 주요 출판사들이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판사의 할인율 제한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출판사별 과징금은 천재교육 3억6000만원, 두산동아 2억4000만원, 비상교육 1억5000만원, 좋은책신사고 1억5000만원이다. 4개사의 초·중·고등학교 참고서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이다. 특히 초등 참고서는 90%에 육박한다.

통상 출판사는 대리점을 통해 일반 서점, 인터넷 서점, 할인마트 등 소매점에 참고서를 공급한다. 일반 소형서점에는 정가의 75%, 인터넷 서점 등에는 정가의 65~70%로 공급한다.

인터넷 서점의 할인 경쟁으로 일반 소형서점의 경영난이 커지자 서점조합연합회는 출판사에 할인율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할인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던 출판사도 이에 동조했다. /박상훈기자

# 침체 직격탄 맞은 2030

## 청년층 가구 소득증가율 중장년의 3분의 1… 고용의 질 악화로 격차 더 확대

대선을 전후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청년 가구와 중장년 가구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올해 3분기 연평균 소득은 40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97만원)에 비해 2.67% 오른 금액이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6만원에서 468만4000원으로 7.42% 늘었다. 50대 가구 소득도 426만7000원에서 462만4000원으로 8.3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30대 가구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5.31%를 기록한 이래 올해 1분기 4.04%, 2분기 0.87%, 3분기 2.67%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반해 40대와 50대의 가구 소득 증가율은 최소 5.85%에서 최대 10.1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이후 가구 소득 증가율이 4분기 연속 40~50대 쪽으로 치우치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년실업 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 등이 꼽힌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 구조가 취약한 20~30대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반면 40~50대는 정규직 비중이 높고 노조의 힘도 강해 높은 소득 증가율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올해 20~30대와 40~5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 격차가 대부분 근로소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증권가 관계자는 "고성장기에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의 임금 상승률이 높은 '상박하후'가 나타났다면 지금은 반대로 '상후하박'이 대세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가 부진하자 주부와 자녀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세대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는 해석도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 임시·일용직 4명중 1명 가난에 허덕

가난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상용직 등에 비해 5배나 빈곤했다. 자영업자 73만 명도 '빈곤' 수준으로 빈곤율이 상용직의 3배였다.

2일 통계청의 2012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임시·일용 근로자의 2011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24.3%였다. 4명 중 1명이 가난하다는 얘기다. 상용직 빈곤율(4.4%)의 5.5배에 해당한다. 이를 2011년 고용통계상의 임시·일용 근로자 수(673만6000명)에 적용하면 빈곤 인구는 163만7000명가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자영업자 빈곤율도 13.1%로 상용직의 3배였다. 자영업자 559만4000명 가운데 73만3000명이 빈곤인구에 해당하는 셈이다.

/김지성기자 lazyhand@

# 새해 인사도 "카톡왔숑~"

## 1일 메시지 전송 48억건 국민 3명중 2명 이용

'카톡 신년 인사'가 늘면서 새해 첫날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 하루 동안 전송된 메시지 건수는 48억 건이었다. 이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2010년 3월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12월 31일 메시지 전송 건수는 46억 건으로 일일 기준 최다 전송 건수를 보였으나 새해 첫날인 다음날 2억 건이 더 증가해 하루 만에 기록을 깼다.

카카오톡으로 신년 인사를 하려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새해로 넘어가는 자정 전후 메시지 트래픽은 평일 대비 150% 늘어났다. 카카오카드 전송 건수도 평일보다 17배가량 급증했다.

새해 첫날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평소보다 200만~300만 명 많은 36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의 3분의 2가량이 카카오톡에 접속해 이용자당 153건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메시지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비상 대기반을 운영했다"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건수가 중요한 날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unique@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조짐

## 폭설·한파 사고급증 탓 손보사 적자 눈덩이

지난해 12월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새해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2012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중소형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120%를 넘어서 손보사 전체 평균으로도 손해율이 100%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높은 손해율은 대규모 적자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자동차보험 대란'이 일어났던 2010년 이후 2년 만이다.

손보업계는 폭설과 한파로 사고가 급증한 데다 각종 할인으로 자동차보험료 평균이 사상 처음으로 70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다급해진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경영개선 특별대책반 운영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이 같은 손보사의 움직임이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 추진으로 귀결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당분간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 정부가 출범 첫해 보험료를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기슬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계사년 첫날 자가용은 운행 스톱** 새해들어 첫 출근일인 2일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전날 내린 눈과 한파로 운행을 포기한 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한복 입은 소녀상** 새해 첫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이 고운 한복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 어린이 놀이터 3곳중 1곳서 중금속 등 검출

어린이 놀이터 3분의 1 이상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실외 놀이터 700곳과 어린이 실내공간 300곳을 대상으로 환경 안전 진단을 한 결과, 322곳이 중금속 방부제 함유 면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실외 놀이터 중 243곳은 도료나 마감재에 납·수은·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 등 토양으로 구성된 놀이터 477곳 가운데 66곳에서는 기생충이 발견됐다.

환경부는 진단 결과와 시설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놀이터 12곳과 어린이집 7곳의 시설을 개선 조치했다. /정윤희기자

##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40> 박상률

외교부 "사상 첫 미혼 여성 대통령 영문 호칭 고민되네"

# 미즈(Ms)? 마담(Madam)?

외국에도 사례 없어
대사들은 "미즈 무난"

사상 첫 미혼 여성 대통령 당선에 외교통상부가 고민에 빠졌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와 달리 성과 기혼 여부를 따지는 영문 호칭 특성상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에게 적절한 의전 표현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마담 프레지던트(Madam President)다. 하지만 '마담 박(Madam Park)'처럼 직접 부르는 호칭으로는 잘 쓰지 않는다. 프랑스어에서 온 마담은 기혼 여성을 일컫는 존칭으로 미혼인 박 당선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 후 박 당선인에게 도착한 각국의 축전에서는 '미즈(Ms)'라는 표현을 써 '미즈 프레지던트 일렉트(Ms. President Elect: 대통령당선인)'라고 한 호칭과 '허 엑설런시(Her Excellency 각하)'라는 표현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쓰는 말이고 '허 엑설런시'는 남성 최고지도자에게 붙이는 '히즈 엑설런시(His Excellency)'를 여성형으로 바꾼 존칭이다.

우리 정부는 여성 대통령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담 프레지던트'를 주로 사용하며 미혼인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에게는 '허 엑설런시'라는 표현을 쓴다.

주한 외국대사들은 '미즈 박'을 가장 무난한 존칭으로 꼽았다. /김유리기자

# 朴당선인 국채 대신 추경?

## 서민경제 활성화 조치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한 논의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 보편 복지 예산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새 정부 초기에 극복해야 할 최대 난제로 경기침체를 꼽는다.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정책과 사업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4%를 기준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정부는 3% 안팎을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사실상 2%대로 보고 있다. 세수 확보가 예상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채 발행이 무산돼 추경 편경 논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민생활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 긴급한 사업을 계산했는데 정부가 기여한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반대해서 실현되지 못했다"며 "새로운 경제활성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 다른 인사는 "경제가 어렵겠지만 인위적인 부양이 필요한지 효과와 시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자격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4~5일께나 인수위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채들솔기자 sirius@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1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 |
|---|---|
| 발행인 · 편집인 | 남균호 |
| 사장 · 편집국장 | 김종학 |
| 광고국장 직대 | 김현철 |
| 서울광고문의 | (02)721-9851 3 |
| 부산광고문의 | (051)650-2100 |
| 독자센터 | (02)721-9882 |

2007년 5월 8일 창간 2007.5.18 등록번호 서울가 00007

연금복권520 제78회

| 등위 | 당첨금 | 당첨번호 | |
|---|---|---|---|
| 1등 | 월 500만원 × 20년 | 5조 | 795435 |
| | | 4조 | 345907 |
| 2등 | 1억원 | 1등의 전후 번호 | |
| 3등 | 1000만원 | 각조 | 287631 |
| 4등 | 100만원 | 각조 | 74730 |
| 5등 | 2만원 | 각조 | 679 |
| 6등 | 2000원 | 각조 | 85, 37 |
| 7등 | 1000원 | 각조 | 1, 8 |

싸이탕 외치는 민주당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앞줄 가운데)가 2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당직자들과 함께 "민주당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벌써 비상해제?

## 비대위원장 추대 놓고 계파갈등… 다음주에나 선임 가능할 듯

민주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난항을 거듭하며 당의 위기 수습에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무식에서 "비대위원장을 추대로 하는 것이 모양도 좋다"며 "많은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심이 긴 의견도 있다.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을 듣는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뉴스인' 방송에 출연해 "말은 선당후사라고 하지만 바뀐 것 같다"며 "자신의 이익에 급급하고 미래에 대한 개산을 먼저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면면이 있어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대부분은 비대위원장 합의 추대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선호 후보가 여럿으로 갈리면서 비대위 체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한길, 원혜영 후보가 언급되지만 당사자가 고사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에는 비주류 쇄신파 일부 의원이 이종걸 의원을 강력하게 추천했지만 범친노 및 주류 측 비토가 거세다.

5선의 이석현, 4선 박병석·이낙연, 3선 유인태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3선 박영선 의원도 초·재선 그룹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선대위 지도부 일원이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파 간 이해관계나 낡은 방식과 거리가 먼 재선급 의원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비대위원장 선출은 빨라야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가 열리는 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그에 앞서 8일까지 당내 인사들을 두루 만나며 의견을 모아갈 방침이다. /김유리기자 grass110@metroseoul.co.kr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인수위원 인선 계획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기자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여권서 또 "윤창중 물러나야"

유승민 의원에 이어 옛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도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2일 인 목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보다 윤 대변인한테 아쉽게 생각한다"며 "과거에 사람들에게 편파적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을 스스로 잘 알 텐데 본인이 (대변인직을) 사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변인이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것이 새 정부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여러 사람에게 내놓고 시킬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서 인수위원 인선의 개방성이 필요함을 조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변인에 대해 "너무 극우다. 당장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위주로 하지 말아야 하고 혼자서 인사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채들솔기자

## "안철수로 단일화했으면 이기고도 남았을텐데…"

법륜 스님이 민주통합당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안철수로의 단일화 카드를 썼으면 이기고도 남는 거였는데 문재인으로의 단일화는 선택 자체에 실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륜 스님은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졌다는 것은 지는 카드를 선택한 것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법륜스님은 "(박근혜 당선인은) 술이 겨자먹기식으로라도 역사인식에 대한 전환을 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에 대해 변화의 흉내도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친노 세력이 일정 직을 맡지 않겠다든지, 민주당이 더 큰 국민정당을 만들 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지 하는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유리기자

# 전세대란 탈출, '1석3조의 최고 아파트'

### 삼송 동원로얄듀크, 은평뉴타운 보다 전세값 싸고 환경도 한수 위

전세값 고민 해결과 함께 주거환경과 출퇴근 문제까지 한 방에 해결 가능한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삼송동원로얄듀크'.

주변 전세가의 80% 수준의 전세금만 납부하면 2년 동안 살아보고 계약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보증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84.97㎡(구 33평형) 1억7000만원, 110.91㎡(구 40평형) 1억9000만원, 116.51㎡(구 42평형) 2억으로 인근의 서울 은평구 지역의 전세값과 비교해도 상당히 싼 수준이다.

주변 지역 전세값 시세를 살펴보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은평구 진관동 A아파트 79㎡형 2억1000만원, 은평뉴타운 B아파트 105㎡형 2억5천만원, 진관동 B아파트 111㎡형 2억7천만원 등 85㎡형에서 110㎡형까지의 전세값이 통상 2억원에서 2억7천만원선에 형성되어 있는데 삼송동원로얄듀크의 보증금이 작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저렴하다.

이와 함께 2년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다는 점도 큰 메리트.

즉, 2년 동안 마음 편하게 살아본 후 그 때 상황에 따라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착한 전세'인 셈이다.

삼송 동원로얄듀크는 지상 17~21층, 10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97㎡ A 타입 101가구, 84.96㎡ 199가구, 110.91㎡ 100가구, 116.51㎡ 198가구 등 모두 598 가구.

(분양문의: 031-771-0002)

# 마을버스에도 '운전자 격벽'

### 차량 바닥·계단엔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기로

서울시내 마을버스에도 운전자 보호 격벽이 설치되고, 차량 바닥과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부착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마을버스 시설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마을버스 1126대에 추가로 운전자 보호 격벽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2006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용 격벽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현재 5656대의 시내버스에는 격벽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마을버스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마을버스에도 격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을버스 500여 대에도 격벽 설치작업을 마쳤으며 이달 1126대에 추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운행하는 28대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비나 눈이 와 차량 내부가 미끄러울 경우를 대비해 20일까지 계단과 차량 바닥에 미끄럼 방지테이프 부착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세종호기자

이번에도 제 밥그릇만 챙긴 국회… "해 넘겨 나온 예산안이 이 모양" 비난 빗발

# 의원연금 한푼도 안 깎고 급식비는 달랑 100원 올려

<시설 아동 한끼 1520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 국회가 눈총을 받고 있다.

1일 가결된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연금 128억2600만원이 수정 없이 고스란히 포함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연금 폐지를 강조했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폐지할 것처럼 말하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 예산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보육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1인당 한 끼 급식비는 152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아름다운재단은 2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350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1만6000여 명의 시설 아동들에게 사실상 이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세 의원들의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불리는 민원성 지역사업 예산은 증액돼 졸속 예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난 점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깎이고 지역의 SOC 예산이 늘어난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종호기자 [email illegible]

불안한 눈빛… 어색한 경례 새해 들어 처음 입대하는 장병들이 2일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에서 입영식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증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늘면서 위생 주의보가 떨어졌다.

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지난해 12월 16~22일(감시 52주 차)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사례 비율은 2.8명으로 12월 9~15일(감시 51주 차)보다 0.1명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이후 대전·전남·경남·강원 등에서 모두 10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분비물을 통해 옮겨지므로 손을 자주 씻고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린 채 기침을 해야 한다"면서 "65세 이상 노인 및 임신부와 소아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 27세 색시 맞은 87세 신랑

### 플레이보이 창업주 헤프너 세 번째 웨딩마치

플레이보이 창업주 휴 헤프너(87)가 무려 60세 연하인 모델 크리스털 해리스(27)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헤프너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플레이보이 저택에서 약혼녀 해리스와 웨딩마치를 올렸다.

헤프너는 결혼식이 끝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웨딩드레스 차림의 신부 사진 등을 올렸다.

헤프너는 대학 시절 만난 밀드레드 윌리엄스와 1949년 처음 결혼했으나 59년 이혼했다. 이후 89년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킴벌리 콘래드(48)와 두 번째 결혼해 2009년 갈라섰다.

/출처=휴 헤프너 트위터

2008년 플레이보이 할로윈 파티에서 헤프너를 처음 만난 해리스는 2009년 12월 플레이보이의 '이달의 플레이메이트'로 선정되는 등 플레이보이 모델로 활약했다.

/미국엽기자 [illegible]

##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 싸이, 멕시코 '올해의 인물' 뽑혔다
- '짝퉁 천국' 중국 위폐도 깜놀 수준

## 휴~ 미국 한숨 돌렸다

### '재정절벽' 합의안 하원도 통과… 추가협상 과정 갈등은 잠복

미국이 재정절벽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1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상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재정절벽 합의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57표, 반대 167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은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합의한 재정절벽 타개 방안을 데드라인(12월 31일 밤 12시)을 넘긴 1일 오전 표결에 부쳐 찬성 89명, 반대 8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의 최대 위협 요소였던 재정절벽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정절벽은 감세가 중단되고 재정 지출이 갑자기 축소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번 합의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이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3000억 달러 규모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지가 부족해 결국 포기했다.

상·하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증세'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이다.

미국은 합의안 덕분에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 우선 시퀘스터를 불과 2개월 늦춰놓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있다.

/조선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회심의 미소 짓고 하와이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재정절벽 합의안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조 바이든 부통령과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벌일 협상은 '좀 덜 드라마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겨울 휴가 중이던 그는 휴가 일정을 중간에 자른 게 아쉬운 듯 곧바로 하와이로 떠났다. /AP 연합뉴스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

#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사망보험

이제 따로 가입 마시고

# 한번에 보장

받으세요!

차티스

## 큰병 이기는 보험 IV

**암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상해 · 질병입원 의료실비 5천만원 한도**
기준병실 기준, 건당 365일 한도 보상. 보장대상 의료비의 10%는 본인부담 (단, 연 200만원 한도)

**상해 · 질병통원 의료실비**
외래 – 건당 25만원 한도 / 처방조제 – 건당 5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로 보상. 건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상해 · 질병사망 1억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장, 전문등반, 자동차(오토바이)경기로 인한 사고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참조
질병사망 또는 약관에 정한 지급율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 5천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기본계약 (1인당, 단위: 원) | | | 선택계약 | | | | | | | | | | | | | | | |
|---|---|---|---|---|---|---|---|---|---|---|---|---|---|---|---|---|---|---|
| Active 보험금 | | | 암 진단비 II | | | 상해입원 의료실비 | | 상해통원 의료실비 | | 질병입원 의료실비 | | 질병통원 의료실비 | | 상해사망 | | 질병사망 | |
| 연령 | 남자 | 여자 | 연령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15~89세 | 4,270 | | 30세 | 2,260 | 7,030 | 2,610 | 830 | 1,170 | 530 | 8,030 | 7,730 | 2,320 | 8,630 | 7,480 | | 4,460 | 3,260 |
| | | | 40세 | 6,780 | 17,570 | 3,330 | 1,580 | 1,460 | 930 | 13,830 | 14,200 | 11,920 | 13,240 | | | 15,100 | 7,730 |
| | | | 50세 | 17,160 | 21,390 | 3,890 | 2,490 | 2,180 | 1,860 | 30,100 | 24,590 | 22,170 | 27,330 | | | 43,860 | 18,510 |

1. 가입연령: 15~66세 2. 납입기간: 전기납 3. 보험료는 상해 · 연령별로 상이 4. 상해 / 질병 입 · 통원 의료실비는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5. 이 보험은 … 6.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80세까지(입 · 통원 담보는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577-6428

큰돈 드는 치매에 다쳐서 드는 병원비도!

## 75세 우리 부모님도 보험가입 된다고요?

차티스

## 명품 부모님보험

**치매간병비 3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시청각질환 수술비 50만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상해입원 의료실비 5천만원 한도** 기준병실기준, 건당 365일 한도 보상, 보장대상 의료비의 10%는 본인부담(단 연200만원 한도)

**상해통원 의료실비** 외래 – 건당 25만원 한도 / 처방조제 – 건당 5만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로보상, 건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약제비 8천원 공제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 화상 ·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기본계약 (1인당, 단위: 원) | | | 선택계약 | | | | | | | | | |
|---|---|---|---|---|---|---|---|---|---|---|---|---|
| Active 보험금 | | | 치매간병비 (중증치매) | | | 시청각질환 수술비 | | 상해입원 의료실비 | | | 상해통원 의료실비 | |
| 연령 | 남자 | 여자 | 연령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연령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50~89세 | 12,540 | | 50세 | 660 | 1,770 | 200 | 230 | 50세 | 3,890 | 2,490 | 2,180 | 1,860 |
| | | | 60세 | 3,600 | 8,560 | 430 | 540 | 60세 | 5,420 | 4,320 | 2,610 | 2,500 |
| | | | 70세 | 21,030 | 42,730 | 1,030 | 1,380 | 70세 | 7,180 | 8,210 | 2,620 | 2,760 |

1. 가입연령: 50~75세 2. 상해입 · 통원 의료실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 5.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6.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상해 입 · 통원 의료실비 담보는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577-6427

CHARTIS

KOSPI

1981.82 / 1982.25 / 1987.35 / 1997.05 / 2031.10 +34.05

12/24 12/26 12/27 12/28 1/2

Nikkei (일본)
10395.18 (+72.20)
Hang Seng (홍콩)
23311.98 (+655.06)
Shanghai (중국)
2269.13 (+35.88)
Dow Jones (미국)
13104.14 (+166.03)

EXCHANGE RATE

| | |
|---|---|
| 달러 | 1061.50 |
| 엔(100) | 1218.15 |
| 유로 | 1410.42 |
| 위안 | 170.38 |

## 작년 한국 국채 금리 연 3.1%로 사상최저

지난해 한국 국채의 연평균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인정해 그만큼 많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표물인 국고채 3년물 기준 연평균 금리는 작년에 연 3.1%였다. 이는 관련 통계의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다.

국고채 5년(3.2%), 10년(3.4%), 20년(3.5%), 무보증 3년 AA-등급 회사채(3.8%) 모두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나타냈다.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올해 연평균 3.3%로 2009년(2.6%)과 2010년(2.7%)을 제외하면 18년 만에 최저다.

채권 금리가 떨어진 것은 작년에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한국 국채의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또 유동성이 커진 선진국 중심의 외국자본들이 한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

/김지성기자

## 비씨카드 '기관주의'

### 전산시업자 선정 불공정 300억 손실에 제재조치

금융 당국이 차세대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비씨카드를 징계했다. 사업자 선정에 부적절해 300억원 넘는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차세대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 등으로 341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비씨카드에 대해 '기관 주의'를, 임직원 10명에게는 주의·견책·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기술평가 이전에 가격 입찰을 먼저 실시해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기술평가 시 성능테스트 수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H사의 유닉스시스템에 임의로 성능테스트 점수를 부여해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또 차세대전산시스템의 개발 미흡 및 IT 인프라 용량 부족으로 개통을 연기하고 이후 2번이나 개통 일정을 변경하면서도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고 개통 연기 후 추가 시스템 개발 등의 후속 사업 추진 여부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역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김지성기자

# "올해 금융빙하기… 내실 올인"

###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지주 빅4 수장들 신년사 '이구동성'

한결같았다. 금융 빙하기에 대비해 내실을 다지자고 했다. 이른바 금융지주 빅4 회장들의 일관된 주문이었다. 다만 방법론에서 새 수익원 찾기나 신속 대응, 재무건전성 확보, 경쟁 우위 확보 등을 언급한 차이가 있었다.

2일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저금리 기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각국의 재정위기로 더 많은 난관과 시련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매금융, 퇴직연금, 체크카드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뱅킹과 부동산 서비스 등 신성장 사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도 "국내 경기는 3%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며 "금융규제 강화와 저금리 기조로 금융권의 수익성은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악화된 금융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 이팔성 회장은 올해 금융산업이 '빙하기'를 맞았다고 적시했다. "저성장·저수익 구조라는 거센 금융산업의 빙하기라고 할 만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것. 그러면서 "우리금융이 이 같은 위기상황에 생존을 도모하려면 각 사업부문별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화를 달성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 한동우 회장은 올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담쟁이 이론을 예로 들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이 처한 환경이나 운이 아니라 이에 대처하는 기업의 행동"이라며 "사업 모델이나 조직 구조, 운영 체계 등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1100만원짜리 '올레드TV' 세계 첫선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55형 크기 '올레드TV'를 2일부터 국내서 판매가격 1100만원으로 정식 출시한다. 2일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에서 LG전자 모델들이 LG 올레드TV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 이건희 회장 "투자, 되도록 늘릴 것"

### 삼성 신년하례식 참석해 "열심히 할 것" 덕담

"앞만 보고 열심히 하겠다. 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늘리겠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신년 하례식을 한 뒤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 회장은 하례식 직후 신년 덕담을 해 달라는 요구에 "열심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건강이 어떠냐는 질문에도 웃으면서 "건강해요"라고 답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 계획에 대해 묻어보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삼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회적 책임은 기업을 하는 이상 항상 따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례식에는 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 부회장, 장남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연주 삼성물산 부회장, 박근희 삼성생명 부회장 등 주요 계열사 회장단도 자리를 빛냈다.

/박상훈기자 zen@

이건희 회장이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손을 잡고 신년 하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보조금 과열 타고 '뺏고 뺏기기' 최다

### 작년 1255만건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는 총 1255만6840건으로 번호이동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래 최다였다.

지난해부터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외에도 알뜰폰(MVNO) 사업자의 번호이동 건수(10만6666건)도 집계에 포함됐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123만6522건), 8월(129만4228건), 9월(119만9636건) 순으로 번호이동이 많았다. 이동시기는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보조금 과열 현상이 일어났던 기간이다.

보조금 경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중순 시장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10월(68만47건)과 11월(88만7350건)에는 번호이동 건수가 가장 적었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가장 많이 순증했고 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가장 많이 순감했다.

/박상훈기자

집배원 '희망의 퍼레이드'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서울 은평우체국 집배원들이 2일 오전 '2013 희망 찬 새 출발 집배원 발대식'을 갖고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과 안전운행을 다짐하는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 61~75세 고령자도 암보험 무심사 가입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보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령자 전용 암보험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61~75세 고령자들의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10년 만기 일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문의전화(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성기자

라이나생명
무배당 실버암보험 (갱신형)
080-951-8585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건설산업… SK건설, 남미 '아수나-ITT'에 5만 달러 기부

## 유전 탓 원시림 시들면 안돼!

SK건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원시 열대림 보호에 힘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SK건설은 지난해 10월 8일 에콰도르 동부의 아마존 열대림 야수니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야수니 프로젝트(야수니 ITT)'에 5만 달러를 기부했다. 남미 지역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이 '야수니-ITT'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9년부터 에콰도르 북부 에스메랄다스에서 4억9000만 달러(56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정유공장 보수공사를 성공적으로 벌이은 SK건설이 한·에콰도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야수니-ITT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선뜻 기부에 나선 것이다.

'야수니-ITT(Ishpingo Tambococha, Tiputini)'는 야수니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이쉬핑고 탐보코차 티푸티니(ITT) 유전을 미개발 상태로 남겨 아마존 열대원시림을 보호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기부금으로 에콰도르의 대체에너지 개발과 빈곤 퇴치에 힘쓰겠다는 국제적 친환경 프로젝트다.

서울 면적의 16배(9823km²)에 달하는 야수니 국립공원의 열대림에 묻혀있는 ITT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8억46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윤근 SK건설 화공플랜트부문장은 "야수니 프로젝트로 4억700만t 상당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 코스피 2030 돌파 1월 랠리 기대

새해 첫 증시가 경쾌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3년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는 2000선을 넘어서며 1월 랠리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코스피는 신년 연휴 사이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합의에 이른 영향을 받아 전 거래일보다 34.05포인트(1.71%) 오른 2031.10으로 장을 마쳤다.

재정절벽 이슈와 별개로 1월은 대체로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여왔다. 실제 1999년 이후 1월 증시는 평균 1% 상승했고 상승 횟수도 지난 13년 중 8차례로 집계됐다.

KDB대우증권 한치환 연구원은 "재정절벽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의 정부부채 한도증액 여부 등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박스권 장세를 예상했다. /박상순기자 zen@metroseoul.co.kr

▲옵티머스G ◀아이폰5 갤럭시S3▶ ▲베가레이서R3 ▲갤노트2

# 알뜰한 그댄 '하이브리드 통신'이 정답

<<저가폰+3G태블릿>>

**쏟아지는 최신 스마트기기 뭘 살까?… 내 취향알면 고민 끝!**

아이폰5, 갤럭시S3 중 어떤 걸 선택할까? 아, 참! 상반기에 갤럭시S4, 아이폰5S도 나온다고 하던데 어쩌지? 새해를 맞이 자신의 스마트 기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은 데다 최신 시리즈 제품이 조만간 나온다는 루머가 줄이 이래저래 결정이 쉽지 않다. 나의 최신 스마트 기기, 어떤 게 좋을까.

## 모험 싫으면 갤S3·아이폰5 등 검증된 베스트셀러를 태블릿PC 따로 구입부담땐 5인치대 액정제품 강추!

**◆갤럭시S3·아이폰5… 구관이 명관!**

많은 사람이 쓰는 제품이라면 일단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 성능, AS 등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폰5와 갤럭시S3는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이폰5는 디자인에서, 갤럭시S3는 성능에서 현존 최고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도 많이 내려갔다. 이통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두 제품은 약정 요금제에 따라서는 사실상 공짜로 얻을 수 있었다.

개성을 중시한다면 LG전자의 옵티머스G, 팬택의 베가레이서R3도 나쁘지 않다. 옵티머스G는 해외에서 올해 가장 우수한 스마트폰으로 선정됐고, 베가레이서R3 역시 빠른 충전시간, 오래가는 배터리 등의 혁신 기술로 마니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쪼잔한 화면은 답답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자주 이용한다면 5인치대의 액정을 갖춘 삼성의 갤럭시노트2나 LG의 옵티머스 뷰를 추천한다.

이들 제품은 기존 스마트폰에 비해 약간 큰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답답함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이들 제품을 선호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게다가 전용 펜으로 글과 그림을 입력할 수 있어 아날로그 느낌을 전달하며 두 개의 창을 띄워 복수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태블릿 PC를 사고 싶지만 통신료 부담 탓에 망설이는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태블릿 PC보다는 작지만 일종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다만 그립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휴대하기에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애매한 사이즈가 옥에 티다. 여성 고객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이 작아 제품 사용 중이나 이동 시 떨어뜨리는 사례가 적잖이 보고되고 있다.

**◆스타 만나려면 상반기 인내하라!**

신제품 출시와 관련한 루머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루머가 신빙성이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최대 5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삼성 갤럭시S4는 2분기 중 출시가 유력하다. 삼성전자 관련 소식을 소개하는 샘모바일은 갤럭시S4가 쿼드코어 프로세서, 5인치 1080p 풀HD 디스플레이, 1300만 화소 최신 안드로이드 운용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옵티머스G2는 내년 하반기 출시가 정설이지만 갤럭시S4나 아이폰5S와 경쟁하려면 비슷한 시기에 나와야 한다. 이에 앞서 LG는 5.5인치 크기의 풀HD급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상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아이폰5S도 6월 출시설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즈는 슈퍼HD 카메라와 스크린, 성능 개선 배터리, 근거리무선통신(NFC), 128GB(기가바이트) 저장공간, 샤프의 최첨단 액정패널 IGZP 스크린 등 구체적인 사양을 예견(?)했다. 최신 아이팟처럼 6~8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더불어 아이패드 미니의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신규 사상을 겨냥해 저가 아이폰도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 저가 아이폰은 아이폰4 모델을 변형해 모델 크기와 앱 프로세서의 성능을 낮춘 사양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최신폰 약정 이용료 너무해!**

스마트 기기는 삶을 스마트하게 만들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한다. 바로 비싼 이용료다. 최신 스마트폰을 약정 가입할 경우 월 이용료가 10만원에 육박하는 게 보통이다.

▲아이패드2

그런데 막상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통화, 문자, 카카오톡, 게임, 인터넷 서핑 외에 즐겨 쓰는 기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 떠오르는 게 '하이브리드 통신' 이용법이다.

한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명 '편의점폰'과 같은 저가 단말기로 통화와 문자 기능을 사용하고 인터넷 서핑, e메일 확인, 게임, 모바일 메신저 등은 3G 태블릿 PC 사용을 병행하는 방법이다.

8만 원짜리 편의점폰을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하면 월 5000원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쓰는 표준요금제만 해도 1만~2만 원대다. 여기에 아이패드2(64G)를 기준으로 2년 약정(데이터 월정 1G) 계약을 하면 단말기 할부 값을 포함해 월 2만6900만 원을 내면 된다. 결국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결합하면 월 3만원대로 스마트한 통신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본격 확산될 인터넷전화가 속속 출시될 예정인 만큼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리드 통신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 소니 특기 집합… 아이패드4 쫄겠네

**써봤습니다! - 소니 엑스페리아 태블릿 S**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태블릿 PC 시장은 가히 춘추전국시대라 할 수 있다. 애플을 제외한 어지간한 메이커는 거의 발을 걸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 보니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그런데 최근 소니가 좀 다른 태블릿 PC를 출시했다. 이 회사의 스마트폰에 써왔던 이름을 그대로 단 '엑스페리아 태블릿 S'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엑스페리아 스마트폰에 들어간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다. 소니 카메라의 디지털 이미징 기술과 함께 '브라비아' 디스플레이 영상 기술, 고품질 사운드를 자랑하는 '워크맨' 등 소니가 내세울 수 있는 전매특허 기술을 모조리 쏟아부었다.

여기에 엔비디아 테그라 3 쿼드코어 CPU를 장착했으니 스펙과 성능만 놓고 보면 아이패드4를 앞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제품을 써보면 앱 구동이나 인터넷 연결 속도가 무척 빠르다. iOS에 비해 버벅거리거나 끊김 현상이 잦은 안드로이드의 특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디자인도 독특하다. 잡지를 반쯤 접은 디자인을 채택해 세로 보기를 할 때 손에 쥐기가 무척 편하다. 뒷면을 밋밋하게 처리한 기존 태블릿의 경우 손에서 떨어뜨리기 쉬워 그만큼 수리를 받는 일도 많았다.

다만 가로 보기를 할 때는 되레 특유의 외형이 장애가 된다. 태블릿은 보통 가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23.8cm(9.4형)의 화면을 탑재하면서도 초슬림 8.8mm의 두께와 570g의 초경량 무게로 우수한 이동성을 갖춘 것은 매력적이다.

아울러 TV, 홈시어터, 오디오 등 적외선 리모컨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이 제품으로 조작할 수 있는 통합 리모트 컨트롤 기능,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잡지 형식의 뷰으로 통합해 볼 수 있는 '소셜라이프' 등도 소니 태블릿을 돋보이게 한다.

16G·32GB 2종의 Wi-Fi 모델로 출시되는 신제품의 공식 가격은 각각 55만9000·65만9000원이다.

/박상훈기자 zen@

6·25 정전 60주년 군 창작 뮤지컬

# 2013년을 여는 감동의 휴머니즘!

우리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

# 뮤지컬 프라미스

# MUSICAL THE PROMISE

잊을 수 없는 6·25 〈THE PROMISE〉를 통해 되살아나다!

긴박했던 전시상황에서 생사를 함께한 7명의 전우들!

**당신의 심장을 뒤흔들 휴먼 대작!**

**2013년 1월 9일 Grand Open!**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지현우 김무열 윤학(초신성) 이특(슈퍼주니어) 이현 박선우 정태우 배승길

주최 국방부 국립극장 주관 육군본부 (사)한국뮤지컬협회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주광 1666-8662 www.musical625.co.kr

# "여의도 12배 알로에 농장…세계 일류"

## 이병훈 유니베라 대표 "웰니스 기업으로 변신" 해외진출에 속도…10년내 30개국 시장 '노크'

"유니베라는 천연물에 기반한 세계적인 웰니스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유니베라(옛 남양알로에)가 새해 야심찬 경영 계획을 밝혔다. 선친인 고 이연호 회장에 이어 글로벌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병훈(사진) 유니베라 대표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말레이시아 진출을 앞두고 있고 10년 안에 30여 개국에서 직접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유니베라는 해외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견인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유니베라의 매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알로에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 연속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세계 일류 상품'의 영광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 들거나 5% 이상 점유해야 한다.

유니베라는 현재 세계 알로에 원료시장에서 43%를 차지해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알로에를 원료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 기업이 서양 천연물을 소재로 10년 연속 세계를 장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유니베라가 10년 연속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될 수 있던 이유는**

▶국내 기업에서 볼 수 없는 수직계열화 시스템이 큰 몫을 했다. 수직계열화는 원료 개발, 연구, 생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알로에를 비롯한 우수한 천연물 원료 공급을 위해 미국, 멕시코, 중국, 러시아 등에서 1000만 평(여의도 12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 웰니스(wellness)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웰니스 시장은 2010년에 120조원 정도였지만 오는 2020년 3000조원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유니베라는 지난해 웰니스 기업 비전을 선포하고, 알로에뿐만 아니라 천연물 원료를 기반으로 한 웰니스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빌리브 웰니스푸드는 콩의 기원지로 알려진 러시아 연해주에서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고 재배한 복두를 넣었다. 이 지역의 콩을 사용한 제품은 빌리브 웰니스푸드가 유일하다.

/김현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100자 브리핑

**SPC그룹**이 2일 새 기업 이미지(CI)를 공개했다. '행복'을 콘셉트로 68년간 제빵 분야에 매진해온 전통, 음식문화 창조, 상생의 가치를 담았다. 미소와 그릇, 밀가루 반죽에서 모양을 따왔다.

올해 한국 진출 25주년을 맞은 **맥도날드**가 2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계사년 시무식을 갖고, 2015년까지 매장을 500개로 늘리고 2만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농심**이 새해 경영지침을 '도전'으로 정하고 공격경영을 선언했다. 백두산 생수 국내 정착, 신라면블랙 파워브랜드화, 커피시장 성공적 진출, 갑자칩 시장 1위 탈환 등을 일궈 전체 매출 4조3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따뜻한 겨울로 떠나자! 제주신라 위버힐링!

**제주신라 패키지 출시**

## 설경 속 한라산 눈꽃 트레킹·스노슈잉 즐기고 따뜻한 야외 온수풀·노천 스파에서 피로 풀어

매서운 추위에 지친 요즘, 따뜻한 힐링이 필요하다.

제주신라호텔이 그림 같은 제주의 겨울을 만끽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위버힐링 패키지'를 제안했다.

낮에는 레저 전문 직원 GAO(Guest Activity Organizer)의 안내에 따라 한라산의 그림 같은 설경 속으로 떠나는 한라산 눈꽃 트레킹과 흰눈이 쌓인 오름과 들판을 전문 스노 슈즈를 신고 걷는 스노 슈잉을 즐긴다. 초행길을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레저 전문 직원 GAO가 함께 동행해 더욱 재미있고 든든하다. 특히 GAO가 준비한 따뜻한 어묵탕과 김밥, 감귤, 커피 등은 따뜻한 감동을 더한다.

트레킹에 필요한 물품을 넣은 배낭, 스틱, 아이젠, 장갑, 모자는

[illegible] 우도어 재킷은 유료로 빌려준다.

저녁이 되면 몽환적이고 따뜻한 제주의 푸른 밤이 기다린다. 사계절 온수풀, 자쿠지, 코란드 사우나 등으로 꾸며진 헌터 스파존에서 쿠바와 브라질에서 초청 [illegible] 건넘의 뢰더 [illegible] 무대를 감상하며 피로를 풀면 된다.

겨울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는 밤이면 따뜻한 글루 바인과 함께 다이트 비치를 감상할 수 있는 로맨틱 플라이스 선셋 바 & 카페로 변신한다.

위버힐링 패키지로 2박 이상 투숙하면 호텔 캠핑 디너를 무료(2인)로 즐길 수 있다. 또한 가족 고객은 위해 키즈 GX룸을 새롭게 선보여 아이들이 다양한 실내 과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했다.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들은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해맞이 이벤트 풍성**

제주신라호텔은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체크인 시 어린이 고객에게 더 신라 베어 수제 인형을 선물하고, 숙박권·더 신라 스파·뷔페 이용권 등의 행운이 함께 하는 2013년 뉴 이어 스크래치 복권을 나눠준다. 이 밖에 제주신라호텔에 투숙하는 가족 고객을 위해 비치볼과 수영모를 증정한다. 문의: www.shilla.net/jeju 1588-1142

/박지원기자

# 지산리조트서 라바인형과 '찰칵'하면 경품

지산리조트가 이달 말까지 인기 캐릭터 라바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포토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산리조트는 종합 안내실 앞 광장에 라바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라바 캐릭터 탈을 쓴 인형 퍼포먼스를 진행해 스키장에 방문한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스키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라바 캐릭터 인형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지산리조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jisanresort) 라바 이벤트 안내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600명에게 라바 포토북, 포토 퍼즐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한편 지산리조트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스키·보드를 즐길 수 있도록 오후 9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해쌍권(야간 [illegible])'을 도입하고, 강남 이심 셔틀버스를 운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www.jisanresort.co.kr (031) 644-1200

/박지원기자

# 빨간 하트로 팔목에 포인트

## 크루치아니 '5.555' 한정판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크루치아니가 새해를 맞아 '5.555 리미티드 에디션 브레이슬릿'을 선보였다.

6개의 연속된 네 잎 클로버 가운데 빨간색 하트로 포인트를 준 팔찌로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네 잎 클로버 색상은 그레이, 네이비, 블루, 블랙 등 10가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출시됐다. 전 세계적으로 5555개 한정 생산됐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크루치아니 홈페이지(www.crociani.co.kr)와 명동점, 압구정점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2만9000원. 문의: 02)2038-4693

/박지원기자

www.chFn.co.kr

뱃속까지 예쁜 여자들의 이너뷰티 쇼 - 팔로우 미
매주 목요일 밤 11시 F 패션앤 방송

t.cast

검프리나무(유칼립투스)가 군락을 이룬 단데농 마운틴에 "빡~" 경적소리가 울린다. 증기기관차 퍼핑빌리가 출발하면 어른도 아이도 차창 밖으로 다리를 내밀고 동화처럼 100년 전 마을로 들어간다. /사진 가 김혜옥 제공

# 양파같은 멜버른, 걸을수록 '그레이트!'

### 달콤싸릿 멜버른 워킹투어기

이기는 남반구의 최고층 빌딩 유레카88의 전망대 스카이덱88. 2평 남짓한 유리 큐빅 '디 엣지'가 관광객을 싣은 채 허공으로 미끄러져 나온다. 스릴과 고소공포가 뒤섞이는 순간 발 아래 펼쳐진 멜버니언의 여유로운 일상과 도도하게 흐르는 야라강변의 낭만이 시선을 낚아챈다. 88층 아래 '팔色 도시' 멜버른으로의 산책은 이렇게 아찔한 감탄과 함께 시작됐다. /하정연기자 ohnew@metroseoul.co.kr

## 혼자 떠나도 지도 한장만 있으면 맛집·쇼핑 골목 완전정복
## 트램카 레스토랑은 '낭만열차' ·야라밸리는 '와인의 바다'
## '환상의 트레킹코스' 그레이트 오션로드서 짜릿한 추억 질감

억겁의 시간을 품게 나는 그레이트 오션로드의 기암절벽과 12사도상을 헬기투어를 타고 내려다 본 모습

요즘 멜버른 여행의 핫 트렌드는 '워킹'이다. 바둑판처럼 잘 구획된 멜버른에선 지도 한 장이면 여유롭게 거닐 수 있으니 산책이라고 해도 좋겠다. 스카이덱88 전망대에서 도심의 큰 구획을 눈에 먼저 담아 본 후 지도를 펴드니 산책 코스가 대충 정리된다.

발 편한 단화를 신고 멜버른의 랜드마크로 통하는 페더레이션 광장과 플린더스 기차역으로 발길을 옮기니 제대로 코스를 잡은 느낌이다. 페더레이션 광장은 서울의 코엑스 같은 곳으로 멜버니언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다양한 행사장으로 연중 활기를 띤다. 맞은편의 '멜버른의 중앙역' 플린더스 역은 시간의 색을 닮은 머스터드빛로 빛을 뿜으며 첨단 디자인의 현대식 트램이 오가는 도로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다.

어느 도시든 그 속살은 골목에 숨어 있다. '레인 웨이'라 불리는 멜버른 도심 뒷골목 투어는 한나절을 멜버니언처럼 보내기에 충분하다.

180개가 넘는다는 멜버른 골목 중 페더레이션 광장 건너 '미시 거리'가 눈길을 확 끈다. 국내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등장했던 '그래피티 골목' 호시어 레인으로, 매일 다른 표정으로 '그림 세수'를 하는 이 골목에선 카메라 셔터를 무심히 눌러도 작품이 된다.

미시 거리 조금 아래쪽에는 입도 눈도 달콤한 골목들이 즐비하다. 예쁜 맛집들이 늘어선 디그레이브스 스트리트와 맛있는 브런치가 넘치는 센터플레이스, 19세기 풍의 높은 천장과 모자이크 바닥이 인상적인 블록 아케이드 쇼핑몰, 그리고 1869년 세워진 로열 아케이드에서는 가난한 여행자의 지갑도 술술 열린다.

멜버른을 고풍스럽게 만드는 일등공신은 19세기 전후에 세워진 건축물들이다. 1856년 세워진 빅토리아주 의사당,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할 때마다 묵는 '호텔계의 공작부인' 윈저호텔, '고딕양식의 교본' 세인트 패트릭 성당 사이를 걷노라면 시간여행을 온듯한 착각에 빠진다.

"파리보다 멜버른에서 먹겠다."

뉴욕타임스의 음식 칼럼니스트 마크 비트먼의 이 한마디 말은 '미식도사' 멜버른에서의 식욕을 돋운다.

걷느라 허기진 배를 잡고 유레카88을 지나 야라강변을 따라 10여 분 더 걸으니 '콜로니얼 트램카 레스토랑' 역이 나온다. 트램카 레스토랑은 멜버른의 명물인 트램(목재로 만든 전차) 두 량을 연결해 내부를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것으로 무료 트램처럼 도시 외곽을 순환한다. 달리는 레스토랑의 유리창이 펼쳐내는 풍경은 한 편의 영화이고, 특별한 날 멋있게 차려 입고 트램카 레스토랑에 올라탄 멜버니언들의 미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달콤하다. 풀코스로 나오는 음식은 수준급이다.

멜버른의 맛을 논할 때 퀸 빅토리아 마켓을 빼놓을 수 없다. 170년 전 문을 연 전통 재래시장인데 '멜버른의 부엌'이라는 애칭으로 불릴만큼 다양한 식자재가 넘쳐나 셰프들의 쇼핑 장소로도 유명하다. 이곳의 마켓 투어 프로그램은 캥거루 도끼 양·악어고기 등 희귀 육류부터 치즈·와인·스파게티까지 맛볼 수 있어 시식 뷔페가 따로 없다.

커피 한잔의 여유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멜버른에서는 주문을 제대로 해야 한다. 한국의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가 이곳에선 쇼트 블랙, 롱 블랙, 플랫 화이트로 각각 불린다.

멜버른에서 멀지 않은 단데농 마운틴 숲 속엔 100년도 넘은 증기기관차 퍼핑빌리가 하루 3번 동심을 싣어나른다. 전 세계 어린이가 사랑하는 동화 '토마스와 친구들' 속 주인공인 토마스 기차를 꼭 빼닮은 증기기관차가 뽀얀 연기와 함께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를 '빠앙~' 하고 울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린아이가 된다.

단데농 숲을 빠져나와 멜버른 동북쪽으로 1시간을 달리면 그림 같은 야라밸리를 만난다. 야라의 뜻처럼 '끝없이' 포도밭이 펼쳐진 이곳엔 크고 작은 와이너리 50여 개가 모여있는데 락포드, 도메인 샹동 등에서는 와인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멜버른에 왔다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 그레이트 오션로드를 빠뜨릴 수 없다. 멜버른에서 차로 3시간여를 달리면 나오는 이 환상적인 해안도로는 국내엔 2000년대 초 현대차의 CF 촬영 장소로 화제가 된 곳으로 최근 도로를 따라 총 100km의 트레킹 코스(4~5일 소요)가 조성됐다.

도로 이름에 붙은 '그레이트'는 제1차 세계대전(The Great War) 종전 후 퇴역군인들의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도로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인데 풍광 자체로 이름값을 한다.

좋은 일정의 관광객들이라면 프린스 타운~록 비치 구간에서 하이라이트를 맛볼 수 있다. 최고 높이 70m, 남극에서 내달려 온 파도마저 한낱 거품처럼 왜소해 보이게 하는 이 위대한 절벽의 클라이맥스는 바닷물을 뚫고 어깨를 나란히 한 12사도상 사암바위들과 만나는 곳이다. 바닷바람의 쉼 없는 습격에도 요동 없는 거대한 '당치'들의 향연은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보면 더 '그레이트' 하다.

---

자세한 여행 정보는 호주 관광청(www.australia.com/ko 02-399-6500)에서 얻을 수 있다.

(왼쪽부터) 고색창연한 플린더스 역, 노천카페가 즐비한 멜버른의 골목 풍경, 도시에 여유를 더하는 무료트램.

2013년 새해에는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해

# 꼭! 신문용지와 종이박스를 분리해주세요~

**연예계에 부는 거센 여풍… 올해를 빛낼 스타 살펴보니**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2013년에는 정치권뿐 아니라 연예계에도 거센 여풍(女風)이 몰아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김수현·버스커버스커·싸이·송중기 등의 활약으로 남자 스타들이 집중 부각됐다면
올해는 방송·영화·가요계 전반에서 여자 스타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유순호·탁진환기자 sure@metroseoul.co.kr

# 안방은 여배우들 독무대

**# 방송·영화계**

대중문화 트렌드를 좌우할 안방극장은 여성 톱 스타들의 차지다

수애는 14일 첫 방송될 SBS 새 월화극 '야왕'에서 퍼스트레이디를 꿈꾸는 강한 여성을 맡아 새해 여풍을 주도한다 김태희는 3월 선보일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사극계 영원한 인기 캐릭터인 장희빈을 맡아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송혜교는 노희경 작가가 집필한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조인성의 연인으로 다음달 13일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김남주 주연의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보영 주연의 '내 딸 서영이' 등 여주인공을 타이틀롤로 내세워 연달아 빅히트를 친 KBS 주말극은 '서영이'의 후속으로 또 다시 여주인공을 내세워 인기몰이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새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의 이야기로 아이유가 물망에 올라 기대를 모은다

> 수애 강한 퍼스트레이디 변신 이어
> 女 앞세운 '토크클럽 배우들' 등장
> ⋮
> 한혜진·손예진 등 영화계 버팀목
> 이효리 5월 복귀 '우먼 파워 정점'

예능계에는 여성 집단 MC토크쇼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주로 남성 집단 MC들이 이끌었던 기존 예능과 달리 MBC '놀러와' 후속으로 14일 방영될 '토크클럽 배우들'은 송선미·김정난·고은아·심혜진·고수희 등 여배우들을 내세워 예능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조짐이다

영화계에서도 여배우들의 활약이 예상된다 지난 몇 년간 '여배우 기근'이라는 말이 돌만큼 스크린에서 여자 스타의 활동은 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26년'의 한혜진, '늑대소년'의 박보영, '타워'의 손예진, '반창꼬'의 한효주, '나의 PS 파트너'의 김아중 등 흥행적미디 여우들이 남자배우 못지 않은 힘있는 연기를 선보여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 가요계**

올해 가요계는 여풍으로 시작됐다 소녀시대는 1년 4개월간의 공백을 만회하려는 듯 새해 첫날 정규 4집 '아이 갓 어 보이'를 발표했고 국내 모든 음원 차트 정상을 싹쓸이 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싸이의 뒤를 이을 K-팝 스타로 소녀시대를 지목했듯이 새 앨범은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돌풍을 일으키는 이례적인 현상도 벌어졌다 소녀시대는 이 여세를 몰아 다음달 일본에서 두 번째 아레나 투어에 돌입하며 하반기에는 북미 시장 공략도 계획하고 있다

소녀시대와 함께 K-팝 인기를 견인하는 카라는 올해 최초의 대형 돔의 공연을 개최한다 이들은 6월 한국 여성 가수로는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서 5만5000여 관객과 만난다

올해 우먼파워의 정점에는 이효리가 우뚝 선다 그는 5월 컴백 준비를 위해 지난달 19일 미국 LA로 떠났다 가수 활동은 2010년 4월 발표한 4집 이후 3년 만의 복귀다 지인을 통해 미국 유명 작곡가를 소개받고 현지의 최신 트렌드 음악을 새 음반에 실을 계획이다

최근 소셜테이너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온 그는 무대에서는 예전과 같은 댄스곡으로 '섹시 퀸'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3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이후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문화계 흐름을 바꿔 놓았다 올해 대중문화 트렌드도 이효리의 활약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에 앞서 백지영은 3일 싱글을 발표하고 다음달 16일 7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해 여풍에 동참한다

2013년 대중문화계 '여풍'을 일으킬 주역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효리·한혜진·박보영·카라·수애.

화제작 제목으로 미리 본 올해의 드라마 트렌드

2012년 대세를 이룬 드라마는 3어절 이상의 긴 제목('해를 품은 달' '넝쿨째 굴러온 당신' '신사의 품격'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 년도 표기('응답하라 1997' '학교 2013')라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 방영 예정인 화제작의 제목에는 어떤 트렌드가 숨어있는지 미리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 이순신에 꽂히고 돈·여자에 홀리고

■ 돈

## 정·재계 뒷얘기-탐욕에 얼룩진 사회 조명

SBS 주말극 '청담동 앨리스' 후속으로 편성된 '돈의 화신'은 '샐러리맨 초한지'의 유인식 PD와 장영철·정경순 부부 작가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은 남자와 정·재계의 뒷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주인공 이차돈 검사 역에는 강지환이 물망에 올랐으며 앞서 황정음·오윤아·박상민 등이 캐스팅됐다.

'추적자 THE CHASER'의 박경수 작가-조남국 PD 후속작 '황금의 제국'은 6월께 SBS 월화극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줄거리는 극비에 부쳐졌지만 권력과 탐욕으로 얼룩진 사회의 그늘을 조명하는 데 남다른 섬세함을 보였던 박 작가 특유의 치밀한 스토리에 더욱 방대해진 스케일이 더해져 기대를 모은다.

■ 여자

## 사기장 백파선 조명·장희빈 새 해석 눈길

MBC '불의 여신 정이'는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사기장인 백파선의 일대기를 다룬다. '청담동 앨리스'의 문근영이 현재 유력한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앞서 부산 기장군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극에는 실패가 없다는 업계 공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네 멋대로 해라' '맛있는 청춘'을 연출한 박성수 PD와 '무사 백동수'를 쓴 권순규 작가가 손잡았다.

'국민 여신' 김태희를 2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불러들인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최정미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장희빈의 일생을 패션 등 새로운 관점에서 그려낸다. 숙종 역에는 박병의 답이 거론되고 있다.

■ 이순신

## 왕조 건립 팩션 사극… 엄태웅 주인공 낙점

KBS2 주말극 '내 딸 서영이' 후속으로 4월 방송될 '최고다 이순신'은 '각시탈'의 윤성식 PD가 메가폰을 잡고 섬마을 소녀 이순신이 서울로 상경해 스타가 되는 과정을 담았다. 순신 역에는 국민 여동생 아이유가, 그를 스타로 만드는 기획사 대표역에는 조정석이 물망에 올라있다.

10월 방영 예정인 SBS '이순신 외전'은 충작함의 대명사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지 않고 새 왕조를 세운다는 팩션사극으로 시놉시스가 공개되자마자 큰 파장을 얻으켰다. 엄태웅이 일찌감치 이순신 장군 역으로 낙점됐으며 '시티헌터'의 진혁 PD가 메가폰을 잡고 '바람의 나라' 박진우 작가가 힘을 보탰다.

각종 이순신들의 출각의 이름을 바꾼 작품도 있다. KBS2 월화극 '학교 2013' 후속으로 방영될 '광고천재 이순신'은 본래 종영 출신 이순신이 광고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을 예정이었으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제목을 '광고천재 이태백'으로 변경했다.

# 포스트 국민 남동생 "저요 저요"

### 10대 오재무·여진구·박건태 주목

유승호(20)가 지난달 "MBC '보고싶다'를 마지막으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볼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누나들을 위해 2013년을 새롭게 장식할 포스트 국민 남동생 후보군을 소개한다.

■ 기호 1번 리틀 홍콩 보증수표 오재무

가수가 되고 싶니 오재무(15)는 후인히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시청률 50.8%라는 대기록을 쓴 '제빵왕 김탁구'의 아역 분량을 견인했다. 그에게 '국민 드라마'의 기운이 깃들었는지 고주성 역으로 출연 중인 KBS2 월화요 미스터김' 역시 25%를 넘기며 일일극 1위를 수성 중이다.

이역 배우치고는 다소 늦은 출발에 '발연기' 논란도 있었지만 지난 2년간 9개 작품을 소화하여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오재무 여진구 박건태

■ 기호 2번 안기고 싶은 연하남 여진구

지난해 '해를 품은 달'의 어린 훤으로 누나들의 사랑을 가득 품은 여진구(16)는 유승호의 계과 CF를 이어받으며 가장 유력한 국민 남동생 후보로 떠올랐다. 절제를 아는 연기와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보호본능 이상의 여심을 자극한다. 또래 배우와 교감하는 캐릭터를 주로 선택해온 영리함도 엿보인다.

올해는 장준환 감독의 복귀작인 영화 '화이'에서 킬러로 키워진 소년 화이로 관객들을 찾는다.

■ 기호 3번 연기만큼 완벽한 외모 박건태

박건태(17)는 '무사 백동수'에서 이운으로 열연했던 유승호의 아역을 맡으며 눈길을 끌었다. 우수에 젖은 눈빛과 선악을 넘나드는 이미지로 이준기·지성 등 미남 배우들의 어린 시절을 꿰차며 '뒬성부른 나무'의 기질을 과시했다.

지난해에는 드라마 '메이퀸'의 어린 창희 역을 맡아 성인 연기자에 버금가는 인상을 남겼다. 모델처럼 큰 키와 예쁜 얼굴은 보너스다. /권보람기자

## 역시 소녀시대…나오자마자 1위

소녀시대의 컴백에 국내외 음원 차트가 함께 들썩였다.

1일 정규 4집의 수록곡을 모두 공개한 이후 타이틀곡 '아이 갓 어 보이'는 이틀째 멜론·엠넷·네이버·다음·올레뮤직 등 주요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지키고 있다. 이 외에도 '댄싱 퀸' '베이비 메이비' '익스프레스 999' '낭만길' '유리아이' 등 수록곡 대부분이 톱 10에 올랐다.

출시와 동시에 해외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2일 오전 일본 아이튠즈 실시간 앨범차트 정상에 올랐다. 미국 아이튠즈 실시간 앨범차트에서도 18~21위 사이를 오가고 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소녀시대 유닛인 태티서의 미니앨범 '트윙클'이 한국 가수로는 최고 기록인 아이튠즈 앨범차트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차트 성적도 현지 프로모션을 전혀 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결과라 주목된다. 소녀시대가 14개월 만에 발표한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과 전 세계에 확장된 K-팝 열기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녀시대의 글로벌 인기는 유튜브에서도 확인된다. '아이 갓 어 보이' 티저 영상은 드라마와 댄스 버전을 합쳐 조회수 1000만 건을 넘어섰다. 뮤직비디오 전체 버전은 공개 20시간 만에 300만 조회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suno@

힐링코드 더하고
신선함 무장하고

## 토크 프로그램 진화

### 신변잡기 벗어난 '땡큐' 호평··'강호동표' 색다른 토크쇼 관심

지상파 3사의 토크 프로그램들이 대거 물갈이되며 기존과 차별화된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최근 '고쇼'의 폐지를 결정한 SBS는 지난달 28일과 1일에 파일럿 프로그램 '땡큐'를 선보였다.

혜민스님·차인표·박찬호 등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세 사람이 함께 여행에 나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연예인의 신변 잡기 토크에서 벗어나 사회와 인간에 대한 철학으로까지 확대된 힐링 토크'라는 호평을 받으며 새로운 예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심야 시간 방송인데도 1·2회가 각각 13.6%(AGB닐슨미디어리서치·수도권 기준), 9.1%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 대중성까지 확보해 정규 편성 가능성을 높였다.

SBS '땡큐'의 차인표·혜민스님·박찬호(왼쪽부터)

강호동

송선미

MBC가 폐지한 '놀러와' 후속으로 14일 첫 방영할 '토크클럽 배우들'도 기존에 보기 드물었던 형식의 토크쇼다. 송선미·김정난·고은아·심혜진·고수희 등 여러 여배우가 출연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자 MC가 아예 없거나 많아야 한 명만을 둔 채 남자 집단 MC로 구성됐던 기존 토크쇼와 차별화된다.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 후속으로 KBS가 22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새 버라이어티 토크쇼도 경청 무기로 신선함을 내세웠다. 토크쇼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은 '안녕하세요'의 이예지 PD와 '황금어장-무릎팍도사'의 문은애 작가가 손을 잡고, 강호동·동방신기 최강창민·용감한형제가 MC를 맡아 색다른 콘셉트의 토크쇼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진형기자 sak0427@metroseoul.co.kr

유쾌한 웃음, 뮤지컬의 전율
잊지 못할 감동
마이 리틀
히어로
대한이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1월 10일 대개봉!

▲베를린 ▼스토커

# 스타 감독들 귀환…"대작 풍년일세"

## 류승완의 '베를린' 이달말 개봉 필두 봉준호의 '설국열차' 등 줄줄이 관객맞이

류승완·김지운·박찬욱·봉준호·김용화 등 내로라하는 스타 감독들이 올 한 해 차례로 신작들을 공개한다. 지난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던 한국 영화계는 이들의 귀환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류 감독은 31일 개봉될 '베를린'으로 포문을 연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독일 베를린을 무대로 펼쳐지는 첩보 액션물이다. 하정우·한석규·류승범·전지현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일찌감치 흥행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2월에는 김 감독의 '라스트 스탠드'와 박 감독의 '스토커'가 나란히 공개된다. 두 편 모두 할리우드 자본으로 제작됐다. 원조 근육질 스타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복귀작으로 잘 알려진 정통 액션물 '라스트…'와 니콜

봉준호 감독 김용화 감독

키드먼 주연의 스릴러 '스토커'는 이달 하순과 다음달 미국에서 먼저 개봉된다. 슈워제네거는 한국 개봉에 맞춰 방한할 예정이다.

봉 감독의 '설국열차'와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 고'는 여름 시즌에 맞대결을 펼친다. 총 제작비 400억원대의 '설국열차'와 300억원대의 '미스터 고' 모두 국내 기술력에 다국적 캐스팅·자본을 접합한 작품들로,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에 토대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 밖에 강우석 감독과 김성수 감독은 휴먼 액션 드라마 '전설의 주먹'과 재난영화 '감기'를 각각 선보이고, 강형철 감독은 '타짜 2'로 전작 '과속스캔들'과 '써니'의 흥행 신화를 다시 쓴다.

강우석 감독은 "지난해처럼 할리우드 대작들이 워낙 많아 (한국 영화의) 승리를 100% 자신하긴 어렵지만, 라인업으로 볼 때 지난해 이상 가는 결과물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나 올해는 한국 영화가 글로벌화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타워 vs 레미제라블 vs 라이프 오브 파이

# 새해 극장가 3파전

극장가가 새해 벽두부터 '타워'와 '레미제라블'의 불꽃 튀는 흥행 대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2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 '타워'는 2012년 첫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41만6339명을 불러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25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수는 243만1062명으로, 상영 8일 만에 200만 고지를 훌쩍 넘어섰다.

뮤지컬 대작 영화 '레미제라블'은 29만3018명을 보태면서 뒤를 이었고, 누적 관객수는 350만3335명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뮤지컬 영화론 최고 흥행 기록(450만 명)을 보유 중인 '맘마미아'에 100만 명 차이로 접근했다.

거장 이안 감독이 소년과 호랑이의 바다 위 표류기를 3D로 담아낸 '라이프 오브 파이'(사진)는 개봉 당일 14만1882명을 동원해 3파전을 예고했다. /조성준기자

## '흥순앓이'덕 '학교' 시청률 15% 고지

KBS2 월화극 '학교 2013'이 대폭 상승한 신년 첫 방송 시청률로 MBC '마의'를 위협했다.

'학교 2013'은 1일 방송에서 지난주 대비 2.… 오른 15.…%(AGB 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며 1위 '마의'(18.1%)를 턱 밑까지 따라잡았다.

아이들 특유의 거친 방식 때문에 서로를 상처 입힌 친구의 이야기와 모델로 활동하며 친분을 쌓은 두 배우의 호흡이 어우러져 네티즌 사이에서는 고남순(이종석)과 박흥수(김우빈)의 이름을 합친 '흥순앓이' 열풍이 불고 있다.

한편 정인재 역으로 열연중인 장나라에 김남길이 분식차를 선물해 눈길을 모았다. 김남길 측은 "개인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열애설을 일축했다. /권보람기자 kwon@

## What's Hot

**CJ오쇼핑**은 회사의 종무식이 있었던 지난달 28일 2012년 'Trust MD 시상식'을 진행했다. TV MD와 인터넷 MD 부문으로 나눠 대상 각 1명을 선정해 트로피와 금 5돈을 증정했으며 우수상 수상자 8명에게도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다. TV 부문 대상에는 문화사업팀 송민정 MD, 인터넷 부문에는 오클락사업팀 김윤환 MD가 대상을 수상했다.

학장 교류를 목적으로 전국 70개 회원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은 지난달 21일 실시된 선거에서 명지대학교가 투표 참여 대학 만장일치로 제2대 회장교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유병진 신임 회장(사진·명지대학교 총장)의 임기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2년간이다.

**팔도식품**은 지난해 7월 출시한 '자연은 맛있다 꽃게짬뽕'(이하 꽃게짬뽕)이 출시 5개월 만인 11월까지 누적 매출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꽃게짬뽕은 9월 출시 2개월 만에 이어 200만 개의 판매고를 올리며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었다. 본격적인 라면 성수기이기도 한 10월부터는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얼큰한 국물 맛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28억원의 월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팔도**는 프리미엄 커피음료 '산타페 더치' 아메리카노와 라떼 등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찬물(상온)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원두를 추출한 더치 스타일의 커피로 깔끔하고 부드러운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최시원이 건넨 운동화에 정려원 '호호'

### '드라마의 제왕' 스틸컷 눈길

SBS 월화드라마 '드라마의 제왕' 측은 27일 정려원과 최시원의 스틸컷 몇 장을 공개했다.

지난 16회 촬영 현장으로 방영 당시 화제가 됐던 운동화 선물 장면이다. 공개된 사진 속 정려원과 최시원은 서로 마주 보며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스탭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좋은 관계자는 "오늘지 빛깔의 운동화가 이고은 작가에게 너무나 잘 어울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하면 도망간다지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는 아니니 괜찮을까나요?" 등 현장 사이에서 고민 커플로 통하는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끈다.

한편 드라마의 제왕은 단 1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실명 위기에 놓인 앤서니 김(김명민 분)이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 어린이는 호텔뷔페가 무료

### 르네상스 서울 주말 혜택

르네상스 서울 호텔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는 5일부터 매주 주말마다 주말 어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성인 1인당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무료로 뷔페를 제공하는 '키즈 잇 프리(Kids Eat Free)' 혜택을 연중 운영한다. 기존에는 패밀리 패키지 이용객에게만 한정된 이 혜택이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큰 반응을 얻으며 확대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또한 초콜릿 분수, 다양한 디저트 등 기존 아이템뿐만 아니라 22여 가지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및 젤리 등이 제공되는 캔디 스테이션을 따로 설치해 무제한으로 먹고 포장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편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고객이 많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어린이이를 동반하고 외식하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 눈길 운전땐 기어 2단 출발

### kt금호렌터카 '안전 조언'

국내 렌터카 업계 1위 브랜드 kt금호렌터카의 차량 전문가들이 눈길과 빙판길이 빈번한 겨울철에는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잦으므로 안전 운전 요령을 숙지해두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출발 전에는 헤드라이트, 윈도, 백미러 등을 포함한 차량 외부에 쌓인 눈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또한 산 등 일렉의 눈을 털어내고 얼어있는 유리창도 녹인 후에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한다면 히터점검은 필수이며 난방은 1시간에 10분 정도를 틀어놓는 것이 적당하다.

눈길에서는 2단 출발을 하는 것이 좋다. 1단으로 출발하면 구동력이 너무 커서 바퀴가 헛돌 위험이 있다. 2단으로 출발하면 구동력이 줄어 적당한 마찰력을 일으키며 차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 지친 현대인 위한 퀀텀에너지

### 레노바티오 제품 화제

건강 제품 전문기업인 레노바티오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활력을 넣어줄 세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맥반 운석을 비롯한 규조토, 송천옥, 자수정, 토르말린 등 15가지 자연 광물을 혼합 가공한 에너지를 나노 이하의 단위로 세분화해 제품에 주입, 퀀텀에너지다. 원력을 갖도록 했다. 퀀텀에너지는 신비한 자연의 힘이 있어 건강유지 및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어 최근 대체의학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MRT연구소의 생명정보연지 활비로 측정한 결과 순환기능 및 면역력 강화, 소뇌 근력 강화, 통증 경감 등에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자,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수험생, 장시간 운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스포츠맨이 사용을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SK와이번스 프로야구 1군 선수 전원이 착용하고 있다.

문의: 02) 2048-5282



## What's New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남산원에서 음식을 바를 진행했다. 특히 18~21일 3일간 롯데손해보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랑의 모금행사의 기부금을 전달해 따뜻함을 더했다.



**디큐브백화점**은 1일 전 임직원이 모여 신년회를 개최하고 고객과 화해하는 이색 케이크커팅식을 했다. 케이크는 뱀띠 해를 상징해 길이 3m의 긴 길이를 가진 형태로 특수 제작돼 주목을 끌었다. 새해 첫날 디큐브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은 커팅된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새로운 신년을 맞이한 기쁨을 함께했다.

전북을 연고지로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새해 첫날인 1일 군산상고와 전주고에 잇달아 방문해 야구발전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군산상고에 발전기금을 전달한 후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주)**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하이브리드 콤팩트 카메라 파인픽스 F800EXR의 월드 포토 릴레이 이벤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한국을 포함한 총 8개국(한국, 캐나다, 스페인, 중국, 홍콩, 일본, 러시아, 독일)이 참여했다. 나라마다 7월 10인 이상으로 5개 팀을 구성하고 한 사람당 3일 동안 10장의 사진을 F800EXR로 촬영해 페이스북과 공식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다음 주자에게 카메라를 넘겨주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성 스킨케어 브랜드 **클리질리시**의 슈퍼 살크 쉐이브 크림은 수염을 부드럽게 만들고 피부를 매끄럽게 해 면도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제품이다. 젠틀 데일리 페이셜 클렌저(사진)는 민감 건성 피부를 위한 남성 피부에 적합한 노폐물을 부드럽게 세척해주며 저자극성으로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 세안 후 당김 없이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꿔준다. 문의: mensline.co.kr

**CPK**(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이 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점을 오픈한다. 특히 CPK는 용산 아이파크몰점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기존 9가지였던 런치 메뉴를 늘려 16가지 메뉴로 선보인다.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런치 세트를 주문할 수 있으며 1만원대의 가격에 수프, 메인 메뉴 1개(선택), 에이드 음료, 커피까지 함께 제공한다.

#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봉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 Day 5 What do you do? 직업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사용으로합니다.

###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무슨 일을 하세요?
저 남자는 여기 학생인가요?
아니오, 그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반 학생인가요?
아마 경비원들일 거예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 do you do?
Is that guy a student here?
No, he isn't.
Are you in my class?
Maybe they're security guards.

###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무엇을 do you do?
B I'm a marketer. I'm Sem Lee.

정답 What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don't know who she is. [Maybe / Perhaps] she's a doctor.

2 No, [he / she] isn't a professor.

##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명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 | | |
|---|---|---|
| notice | 명 통지<br>동 알아차리다 | until further notice<br>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
| representative | 명 대표자, 판매원<br>represent 동 대표하다 | a sales representative<br>영업 사원 |
| schedule | 명 일정<br>동 일정을 잡다 | behind[ahead of] schedule<br>일정보다 늦은[빠른] |
| study | 명 연구<br>동 연구하다 | Studies show[suggest] that ~<br>연구에 따르면 ~라고 한다 |
| use | 명 사용<br>동 사용하다 | The copier is in use now.<br>복사기는 지금 사용 중이다 |
| variety | 명 다양함<br>vary 동 다양하다 | a variety of<br>다양한 |

##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 Part 2. Describe a picture

#### 도입부 말하기

• 사진 속 장소 말하기

This is a picture taken **at a grocery store**. 이 사진은 식료품 가게에서 찍은 것입니다.

사진 속 장소를 말할 때는 장소 앞에 전치사를 반드시 붙여서 문장을 완성해야 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전치사로는 at, in 두 가지가 있는데 장소에 따른 각각의 쓰임을 알아보자.

▶ 전치사 at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장소 및 지점

옷 가게에서 at a clothing store
학교에서 at a school
체육관에서 at a gym
미용실에서 at a hair salon
식당에서 at a restaurant
식료품 가게에서 at a grocery store

ex. This is a picture taken at a clothing store. 이 사진은 옷 가게에서 찍은 것입니다.

▶ 전치사 in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 내부 및 외부의 장소

사무실에서 in the office
교실에서 in the classroom
회의실에서 in the meeting room
실험실에서 in the laboratory

ex. This is a picture taken in the office. 이 사진은 사무실에서 찍은 것입니다.

# "웰컴! 지동원"

## 아우크스부르크 홈피에 공식발표

지동원이 메디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해 아우크스부르크의 정식 멤버가 됐다.

아우크스부르크는 2일 구단 홈페이지에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공격수 지동원을 임대 영입했다. 그는 메디컬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했다"며 "선덜랜드와의 계약에 따라 자세한 임대 조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자철과 지동원이 함께 뛰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선수가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함께 동메달을 일궈냈다고 소개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슈테판 로이터 사무국장은 "지동원은 공격 부문 어느 곳에나 기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아우크스부르크가 후반기 리그를 준비하는 데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아우크스부르크 홈페이지 캡처

# 이시영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대사

영화배우 이시영(31·사진)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는 2일 위촉식을 열고 "이시영은 톱클래스의 여배우이면서도 최근 복싱 선수로 활약하는 등 스포츠 이미지에 부합해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시영은 "아시안게임 홍보대사로 인천과 아시안게임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싱 선수로 활동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국가대표로 선발돼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열린 복싱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출전 자격을 얻는 등 복싱 재능을 뽐내고 있다. /김민준기자

# 류현진·추신수의 힘!

## 다저스·신시내티 MLB 파워랭킹 4·5위 수직상승

한국인 메이저리거 류현진(26·LA 다저스)과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소속팀의 미국프로야구(MLB) 구단 파워랭킹을 수직으로 끌어올렸다.

미국 스포츠 전문 웹진 블리처리포트는 2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스토브리그 결과를 정리하며 각 구단 파워랭킹을 발표했다. 투수 잭 그레인키와 류현진의 합류로 막강한 선발 마운드를 구축한 다저스는 4위에 랭크됐다.

블리처리포트는 "류현진까지 가세하면서 다저스는 선발진이 엄청나게 넘쳐난다"며 "애런 하랑, 크리스 카푸아노, 테드 릴리 등이 5선발 자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불펜에 합류하거나 타격 보강을 위한 트레이드 카드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ESPN 역시 이날 각 구단 외야진을 평가하면서 칼 크로퍼드, 맷 켐프, 안드레 이시어로 구성된 다저스의 외야진을 전체 4위로 평가했다.

추신수가 가세한 신시내티는 파워랭킹 5위에 올랐다. 블리처리포트는 "신시내티는 가장 강력한 라인업과 흥미로운 투수진을 앞세워 2013년을 시작한다"며 "힘을 갖춘 훌륭한 리드오프 추신수는 신시내티를 득점력 있는 강팀으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SPN은 추신수, 제이 브루스, 라이언 루드윅으로 이뤄진 신시내티 외야진을 6위에 올렸다.

ESPN은 "2009~2010년 클리블랜드에서 2년 연속 타율 3할과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추신수는 정확성과 파괴력을 갖춘 톱타자로 중견수를 맡을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신시내티는 추신수 외에 지난해 34홈런 99타점 3보살을 기록한 우익수 브루스와 26홈런 80타점을 올린 좌익수 루드윅의 결합으로 막강 외야진을 구축했다"고 평했다.

한편 MLB 구단 파워랭킹 1위에는 지난해 내셔널리그 승률 1위에 오른 워싱턴 내셔널스가 선정됐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LA 에인절스가 뒤를 이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30개 구단 중 최하위로 지목됐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류현진

추신수

# 러시앤캐시, 시즌 두 번째 3연승

남자 프로배구 '돌풍의 팀' 러시앤캐시가 시즌 두 번째 3연승 행진을 벌였다.

러시앤캐시는 2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진행된 NH농협 2012~2013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홈경기에서 용병 바카레 다미(20득점)를 비롯해 안준찬(13득점)과 김정환(13득점) 좌·우 날개에 힘입어 KEPCO를 3-0으로 꺾었다.

KEPCO는 주상용·서재덕이 9득점으로 활약했지만 안젤코 추크가 공격 성공률 29.03%로 침묵해 12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이번 경기로 러시앤캐시는 총 6승 9패로 승점 17점을 기록해 4위 LIG손해보험(25점)과의 차이를 좁혔다. 같은 날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IBK기업은행이 현대건설을 3-0으로 꺾고 승점 38점을 쌓으며 2위 GS칼텍스(29점)와 격차를 벌렸다.



# 기성용 종료 직전 극적 AS

## 프리미어리그 첫 공격포인트… "활기찬 발놀림" 평점 6

기성용(24·스완지시티·사진)이 후반 교체 출전해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기성용은 2일 열린 2012~2013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아스톤빌라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17분 조너선 데 구즈만을 대신해 투입됐다. 30여 분을 소화한 기성용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1-2로 뒤지던 경기 후반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에도 가담한 기성용은 후반 추가시간 대니 그래엄이 터뜨린 동점골의 시발점이 되는 패스로 도움을 기록했다. 프리미어리그 17경기 만에 나온 첫 공격 포인트다.

2-2 무승부를 기록한 스완지는 승점 29(7승8무6패)로 스토크시티(6승11무4패 골득실 +1)와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5)에서 앞서 8위로 올라섰다.

경기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활기찬 발놀림을 선보였다"며 기성용에게 평점 6을 매겼다.

한편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뛰는 이청용(볼턴)과 김보경(카디프시티)은 나란히 선발 출장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김민준기자

Double A
우리 팀 회의는
시작만 했다 하면
42.195km
마라톤 회의를
신고합니다!
보너스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 Double A에 신고하세요!
Double A에 신고하면,
여행상품권이 그대품에!
Call
1644-8810